

MWC26

통신사 정의 다시 쓴다... 네트워크 넘어 'AI 컴퍼니' 선언

SKT AI 최적화에 조 규모 투자
'A.X K1'로 풀스택 AI 역량 과시

2일(현지시간)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 'MWC26'은 더 이상 통신 기술 전시회로만 규정하기 어려운 무대가 됐다.

올해 주제인 'The IQ Era(지능형 시대)' 아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는 네트워크 사업자라는 기존 정체성을 견어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전면적 사업 재편을 선언했다. 속도와 커버리지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AI 모델, 보안, 자율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공개하며 통신업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내 통신 3사는 이번 전시회 기점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경쟁을 넘어 AI 인프라와 서비스, 데이터센터, 보안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체질 전환'을 선언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통신사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정재현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신업의 미래를 비판하며 기업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AI 네이티브' 전략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26에서 정재현 SKT CEO가 SKT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 /SKT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6'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전우)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르메르디앙 바르셀로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KT

을 발표했다.

정 CEO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더라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영업전선과 공급시스템 등 기존의 모든 핵심 인프라를 AI 최적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전역에 1GW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해 아시아 AI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SKT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글로벌 AI 판을 직접 짚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519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 'A.X K1'을 시연하며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AI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역량을 과시한 점은 SKT가 가진 체급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KT는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과 차세대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전시관을 '광화문광장' 테마로 꾸며 K-컬처를 녹여내는 감성 전략을 펼치면서도, 내실은 기업 업무를 통째로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AI'로 채웠다. 상담을 넘어 실제 업무 처리까지 완결하는 '에이전트 AICC'와 네트워크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하는 'AI-네이티브(AI-Native)네트워크' 비전은 KT가 그리는 6G 시대의 핵심 청사진이다.

특히 KT는 6G를 단순한 속도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AI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인프라로 재정의하며, 지상과 공중을 잇는 3차원 커버리지를 통해 통신의 물리적 한계를 확장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은 6G 경쟁이 개별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차

KT 통합 아키텍처 경쟁 예고
AI로 6G 시대 핵심 청사진 그려
LG U+ '원팀 LG' 기술로드맵

원을 넘어 AI, 위성, 보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아키텍처 경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국내 유일의 5G 단독모드(SA) 운용 경험을 강력한 기술적 자산으로 내세워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그룹의 역량을 결집한 '원팀 LG'의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인터페이스인 '음성'에 승부수를 던졌다.

홍범식 CEO는 LG그룹 경영진 최초로 MWC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 음성이 AI의 다음 격전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

ry Connection)'를 화두로 던졌다. 자체 개발한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의 진화형인 '익시오 프로'는 사용자가 호출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제안하는 능동형 에이전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LG유플러스는 기술의 고도화만큼이나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동형암호와 양자내성암호 등 강력한 보안 포트폴리오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단순히 물량 공세를 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승부처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최대 규모의 파주 AIDC를 기반으로 한 실제 중심의 AI 구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서현 기자



seo@metroseoul.co.kr metro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 미래소통 핵심 될 것”

홍범식 LG U+ CEO 기조연설
익시오 초개인화 에이전트 의지
음성, 중심 인터페이스 될 것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음성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선언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CEO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소통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그룹 경영진이

MWC 공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범식 CEO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손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문자나 이메일로는 느낄 수 없는 벽찬 감정의 순간을 공유하며 음성이 가진 힘이 주목했다"며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눌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화 통화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고도화되었음에도 정작 통화 경험은 정체되어 오히려 불편한 영역이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익시오는 단순한 음성 비서를 넘어선다. 홍 CEO는 "수많은 기술 혁신에도 통화 경험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음성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AI 콜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탑재해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 맥락에 맞는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홍 CEO는 익시오의 진화 방향

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익시오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명령을 해야 수행하는 AI 비서였다면, 이제는 대화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를 지나 사용자의 의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초개인화 에이전트'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실제,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익시오 도입 이후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고객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디바이스 환경에 대한 통찰도

이어졌다. 홍 CEO는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AI 에이전트, 심지어 피지컬 AI까지 수많은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음성이 그 중심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미래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홍 CEO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음성 통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며 모두를 위한 AI"라고 정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통신사가 음성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드는 글로벌 AI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AI로 정밀타격... 현대전 '비대칭 전력' 부상

美, 대이란 작전에 '클로드' 투입
AI 극단적 선택에 윤리적 우려 커져

인공지능(AI)이 현대전의 판을 뒤트는 '비대칭 전력(戰力)'으로 떠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이어,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서도 AI가 표적 식별과 작전 설계의 핵심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쟁의 무게 중심이 병력과 화력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3일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작전 '장대한 분노'에는 앤트

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투입됐다. 이 모델은 팔라티어의 국방 플랫폼 'AIP 포디엔스'에 통합돼 미군 기밀망에서 운용됐다. 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적 지휘관의 은신 확률을 추정하고, 타격 시나리오별 부수 피해를 계산해 지휘 결정을 지원했다. 대규모 지상군 대신 AI 기반 정밀 타격으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적 우려도 짙어진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 시뮬레이션에서는 주요 AI 모델이 외교보다 핵 공격 같은 극단적 선택

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AI 표적 시스템 '라벤더'가 하마스 요원 제거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을 일정한 수준 '허용'한 사실도 국제적 논란을 낳았다.

물리적 타격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란의 종교 앱 '바테사바 켈린더'가 해킹돼 사용자들에게 위협성 메시지가 발송됐고,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역시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 능력 약화와 함께 정권 고위층을 압박하기 위한 정보전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연계 해커 조직들은 요르단 등 주변국을 상대로 한 공격을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과기부, 이달 GPU 4000장 공급 시작

1차 추경으로 1만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가운데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000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GPU 자원을 산·학·연에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산업계, 대학과 산학협력단 등 학계, 연구소 등 연구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평가

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평가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기관은 3월부터 GPU를 할당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회수 후 재배분하는 등 자원 효율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GPU 공급을 위해 3월 중 2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계 대상 4000장, 학계·연구계 대상 약 1000장을 별도 트랙으로 공모하며,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GPU 자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